

# 직업성 암 산재신청과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절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면 치료비, 간병비, 휴업급여, 유족급여 및 다양한 혜택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모두 가능합니다.

급여종류	지급사유	급여수준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요양비 전액 요양기간 4일 이상시 적용
간병급여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 필요시	간병료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1일당 평균급여의 70% 4일 이상시 적용
장애급여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치유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지급	장애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90.1%의 연금(1급)부터 55일분의 일시금(14급)까지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1년 평균임금의 47%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의비	업무상 사망으로 장제를 실행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
직업재할 급여	장애급여를 받는 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비용은 고시 금액의 범위내 실제비용, 수당은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

- 대상 학교 급식실 근무 조합원, 퇴직조합원 중 암진단을 받으신 분
- 신청방법 학비노조 각 지부 노동안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직업성 암환자를 찾습니다!

학교 급식실 근무 이후 발병한 암은 개인병력이 아니라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흙, 화학약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직업성 암일 수 있습니다. 본인과 동료 중 암으로 투병 중이거나 암으로 사망하신 분의 유족분들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문의하시어 산업재해 피해와 관련한 무료상담과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책자문기관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과 전국 7개 권역  
법률지원단체로 구성된 상담지원센터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와 함께합니다.

## 학비노조의 요구

- 근무시간 외 안전보건교육 안정적 실시
- 교육부 산보위 운영, 국립학교 안전보건교육 실시
- 학교 특성에 맞는 표준 안전보건규정 마련
-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노동강도 완화
- 대체인력제 제도화 및 교육청 대체인력 인건비 편성
- 작업공간 공기질 등 환경개선 및 유해물질 노출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 급식 조리실 조리흙 등 유해물질, 고온, 소음 등에 제대로된 작업환경 측정
- 학교 현장의 공기순환장치(공조기, 후드 등) 작동 여부와 성능 전수조사 및 개선
- 조리흙의 발생이 높은 볶음, 튀김 등의 요리 최소화
- 휴게공간 설치 및 적정화
- 학생(및 보호자) 대상 업무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구

# 암도 산재다!

## 당신의 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 서비스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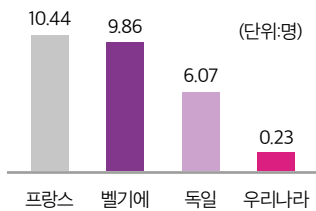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29 예안빌딩 6층 TEL 02-847-2006 FAX 02-6234-0264  
E-mail kctuedub@daum.net 홈페이지 http://www.hakbi.org

#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암!

연간 전체 암환자 24만명 중 200명만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  
세계보건기구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9,600여명이 직업성 암으로 추정됩니다.

## 주요 국가 직업성암 인정 현황



(단위:명)  
산재보험 가입 10만명당 직업성 암 승인 건수  
※ 한국은 2010년, 나머지 국가는 2006년 기준임.  
자료:고용노동부(2012년)

주요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이유는 직업성암 산재신청 자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암의 발병원인을 직업성 또는 환경성 요인으로 보지 않고 대부분 술·담배·유전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치부해왔습니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업성암승인율	38%	40%	49%	58%	61%

〇〇

우리나라 직업성암의  
산재승인율은 낮지 않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동료  
암환자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직업성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〇〇



#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하라!

## 학비노조 투쟁 경과

### 학비노조 조합원 폐암 산재인정!

급식실 공조기와 후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은 1년 넘게 방치하다 결국 조합원 A씨 폐암말기 3기 판정을 받고 사망. 지난 2021년 2월 24일 4년만에 폐암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음. 이에 학비노조는 교육부를 비롯한 전국 17개 교육청의 노동자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폭로하고 여론 사업과 교육당국 압박 등의 투쟁을 진행 중이다.

###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과 제도개선 기자회견

제철소, 플랜트건설, 학교급식실, 전자산업, 철도, 화학공단 노동자 직업성암 신청자 77명 중 학비노조 조합원이 25명(32%)으로 가장 많은 수 신청!  
우리의 요구는 목숨에 대한 요구이다. 다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직업성암 찾기 운동을 진행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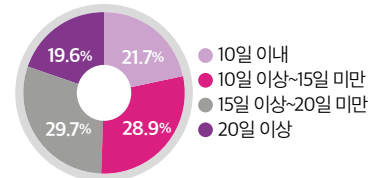


## 21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급식실 산업안전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① 조사대상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종사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배식 보조원)
- ② 응답자 : 전국 5,362명
- ③ 조사기간 : 2021년 6월 1일 ~ 6월 7일
- ④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⑤ 자문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보건학 박사)

### 1) 작업 환경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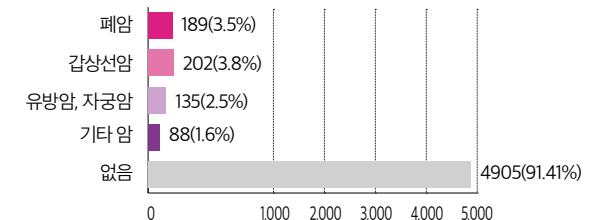
• 월 평균 볏음, 튀김, 구이 등 조리용 발생 작업이 10일 이상인 경우가 전체 조사 대상자의 78.3%, 20일 이상인 경우가 19.6%로 나타나 조리용 발생 작업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반면, 급식실 공기순환장치(후드, 공조기 등)는 충분히 작동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55.8%로 나타나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2) 암 발생 특성

• 급식실 근무 이후 폐암을 진단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총 189명임 (3.5%)  
• 10만 명 당 발생자수(조유병률)로 계산하면 총 3,540명으로 2018년 국가암통계자료(국립암센터, 2020)와 비교하면 2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국가 암통계는 10만 명 당 142.6명)



### 공무직위원회 산업안전 의제 논의

공무직위원회 노동안전 의제 본격 논의 시작!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공무직위원회 진행 중. 교육부교육청이 참여하는 교육분야는 산업안전 의제를 시급한 의제로 선정, 교육당국 담당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동자 건강권 논의 본격 시작,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근무환경이 달라질겁니다.